

“독자적 운영 필요” vs “붙였다 뗐다 안돼” 팽팽

찬성측
“분리 통해 효율성 높여야 지역에 맞는 연구원 마련을”

반대측
“연구원 경쟁력만 약화시켜 독립성·자율성 등 강화해야”

16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린 ‘(재)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전연 분리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분리 찬성 측은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은 “분리 반복은 연구원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찬성자로 토론에 참여한 류재현 전남대 교수는 이날 오후 시의회 5층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마저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는 전남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연구원의 유사 과제 통합 연구는 시·도의 특성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기후와 도시문제, 지속가능성 등 다변화한 대도시권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연구 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 기능 컨트를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으로 나선 전남대 호남대 교수는 연구원 분리를 ‘경쟁을 통한 먹거리 해결’이라고 정의하고 시·도가 각각 지역에 맞는 연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는 “광주는 전남에 둘러싸인 내륙형 광역시이다. 주변을 둘러싼 전남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며 “광전연이 핵심 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수탁 과제와 정책 과제의 수를 줄이는 등 시·도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리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분리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전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문경년 광전연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을 분리 운영한다고 해서 연구원이 시·도의 논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객관적·합리적인 연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연구원 운영 시스템을 보수·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상생의 협력 게임을 해야지 서로 뺏고 뺏기는 치킨 게임을 해선 안 된다”며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전연 분리 운영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통합 유지와 분리 논쟁보다 ‘지역 싱크탱크로서 연구원 정체성 확립’, ‘연구원 기능·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광전연의 통합과 분리 반복이 연구원 역량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의회 참여 강화 등으로 연구원 정체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남도청 안실에서 열린 전남도·도의회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분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종의 (사)상생나무 이사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간 통합 운영보다 분리 운영이 조직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순천대 교수도 “광주와 전남의 산업 구조는 크게 다르다. 생산 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큰 차이가 나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행정적·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분리해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리 반대 측에서 발언한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통합 연구기관으로 재편된 이후 이제야 구조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앞으로 독립성·자율성·창의성·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광주·전남의 자치분권과 자율성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창조적·효과적으로 견인하려면, 통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만이 호남 전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일이다”고 강조

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 “광전연의 위상을 비롯해 역할 수행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연구원의 분리나 통합이냐의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분리하더라도 분리 후 연구원 육성 비전과 목표, 실행 방안에 대한 약속과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도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중립 입장으로 나선 심원섭 목포대 교수는 “통합·분리 논의 이전에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분리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분리 기로에 놓인 광전연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확대됐다. 이후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민선 6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했다.

최황지·김해나 기자

광주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전 가세

마한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전남에 유네스코 등재 협력 제안

마한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을 보유한 광주시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광주시는 16일 국가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된 문화유산으로 △국내 최대 벼집질 퇴적층 △가장 오래된 약기(현약기·찰음약기·북 등) △수레 부속구(바퀴살·차축) △농경구 △무기 △제사 도구 △환호 등이 발견된 마한의 대표적 도시유적이다. 광주시는 마한문화유산을 대표 관광자

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월계동 장고분 등 200여곳에 달하는 마한 유적이 있는 역사문화도시고, 고대 마한은 지금의 광주를 만든 씨앗이다”며 “가장 오래된 현약기는 광주의 예술로 태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수레 바퀴는 첨단 자동차 산업도시로, 화살촉은 광주를 양궁의 메카로 만들었다”고 광주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마한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마한역사문화권인 전남에 공동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마한이라는 역사공동체이자 각자 독특한 문화를 지닌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 국회의원, 신창동 주민 등이 16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에서 열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특징이 있다.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생 협력의 길을 열고 마한이 꽃피웠던 공동 번영의 시대로 다시 나아가자”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광주 유치

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 과제와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문화유산의 연구·홍보를 위한 기관으

로, 현재 문화재청이 국비 2억원을 들여 건립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건립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탄성률과 인장강도 우수하며 기존수용성제품과 차원이 다른 물방울 방지효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마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